



#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

## CONTENTS

- 2026 미·중 정상회담 개최...미·중 관계·경제통상·대만 문제 논의
- 中, AI 에이전트 첫 종합정책 발표...‘키우되, 통제한다’
- 2025년 디지털 중국 보고서 발표, 中 AI 산업 1.2조 위안 돌파
- 中 AI-에너지 융합 전략 발표 : 시가 전기를 쓰고, 전기가 시를 키운다
- 모건스탠리, 中 휴머노이드 로봇 ‘전기차 공식’ 재현 주목



본 보고서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가 중국 과학기술계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정리·작성한 자료입니다. 관련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## 01 2026 미·중 정상회담 개최...미·중 관계·경제통상·대만 문제 논의

우만주 (yumanshu@kostec.re.kr)

- **(배경)** 2026년 5월 13~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민 방중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9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방문으로, 미·중 고위급 소통 재개와 경제·통상 협력 관리 측면에서 주목됨
- **(정상외교 흐름)**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첫 회담 이후 총 6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해 왔으며,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 간 고위급 소통이 재개·지속되는 흐름 속에서 개최됨  
**<참고: 6차례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>**

| 구분    | 시간        | 장소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차 회담 | 2017년 4월  | 미국 플로리다주       | 관계 발전, 국제·지역 현안 |
| 2차 회담 | 2017년 7월  | 독일 함부르크        | G20, 공동 관심사     |
| 3차 회담 | 2017년 11월 | 중국 베이징         | 국민 방중, 양국 현안    |
| 4차 회담 | 2018년 12월 |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| G20, 경제·무역      |
| 5차 회담 | 2019년 6월  | 일본 오사카         | 협력, 안정          |
| 6차 회담 | 2025년 10월 | 한국 부산          | 고위급 소통, 관계 재조정  |

- **(경제적 영향)** 미·중 양국은 세계 경제 총량의 1/3 이상, 세계 상품무역의 약 1/5을 차지하는 만큼, 양국 관계 변화는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**(회담 결과)** 2026년 5월 14일,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민 방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, 미·중 관계의 새로운 방향, 경제·통상 협력, 대만 문제, 국제 현안 등을 논의



### 1) 양국 관계: '미·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'를 新 방향으로 제시

\* 미·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(中美建设性战略稳定关系): 협력을 중심에 두고, 경쟁은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며, 갈등은 통제 가능한 범위에 두고, 평화를 오래 유지하자는 관계 방향

- 시진핑 주석은 현재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며, 미·중 양국이 '투키디데스 함정'을 넘어설 수 있을지,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수 있는지'가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  
 \* 투키디데스의 함정: 신흥 강대국에 대한 두려움이 기존 패권국과의 전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이론

- 양 정상은 '미·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'를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방향으로 삼는 데 의견을 했으며, 시 주석은 이를 **향후 3년 또는 그 이상의 미·중 관계를 이끄는 전략적 기준**으로 제시

## 2) 경제·통상: 상호이익과 평등한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강조

- 시진핑 주석은 미·중 경제·통상 관계의 본질은 **상호이익과 윈윈**에 있으며, 양국 간 이견과 마찰은 평등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
  - 시 주석은 전날 양국 경제·통상팀이 '**전반적으로 균형 있고 긍정적인 성과**'를 도출했다고 평가하고, 이는 양국 국민과 세계에 모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설명
  - 또한 중국의 개방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며, 미국 기업의 중국 개혁개방 참여와 대중국 호혜 협력을 환영한다는 입장 제시

## 3) 협력 분야: 외교·군사 소통 채널 활용과 실무 협력 확대

- 시진핑 주석은 양국 정상 간 합의한 공감대를 이행하고, 정치·외교 및 양군 간 소통 채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
  -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**경제·통상, 위생 보건, 농업, 관광, 인문교류, 법 집행** 등을 제시

## 4) 핵심 현안: 대만 문제와 주요 국제·지역 문제 논의

- 시진핑 주석은 **대만 문제**를 미·중 관계에서 **가장 중요한 현안**으로 강조하고, 이 문제가 양국 관계의 안정 여부와 직결된다고 언급
  - 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잘 처리될 경우 양국 관계가 전반적으로 안정될 수 있으나, 잘못 처리될 경우 양국 간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미·중 관계가 위험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언급
    - \* '대만 독립'과 대만해협 평화는 양립할 수 없으며,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미·중 양국의 최대공약수라고 설명
  - 양 정상은 중동 정세, 우크라이나 위기,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·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(G20)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지지하기로 합의하였음

### 〈참고: 美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언〉

- ▶ **(정상 간 관계)**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"역사상 미·중 정상 간 가장 오래 지속되고 가장 좋은 관계"를 구축해 왔다고 평가
- **(중국 존중)**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"위대한 지도자", 중국을 "위대한 국가"라고 표현하며, 시 주석과 중국 국민에 대한 존중을 표명
- **(협력 확대)** 트럼프 대통령은 미·중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국가라며, 양국 협력이 양국과 세계를 위해 많은 "큰일과 좋은 일"을 할 수 있다고 언급
- **(기업 협력)**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 대표단이 미국의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로 구성됐다고 소개하며, 이들의 참석은 향후 미·중 무역·비즈니스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



■ (기업 협력) 이번 방중에 미국 공상업계 대표들이 동행했으며, 미·중 기업 협력 확대할 전망

- (미국기업) 미국 기업대표단은 과학기술, 금융, 항공, 농업 등 주요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 중심으로 구성됨
  - (과학기술) 애플·퀄컴·마이크론·엔비디아 등은 중국 시장 매출과 첨단기술 규제의 영향을 직접 받는 기업들로, AI칩 수출통제, 반도체 공급망, 전기차·자율주행 규제 등이 주요 관심 사안으로 제시됨
  - (금융) 골드만삭스·씨티·블랙록·블랙스톤·비자·마스터카드 등은 중국 금융시장 개방, 자본 이동, 환율 안정 등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, 미국 금융자본이 여전히 중국 시장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 가능
  - (항공·농업) 보잉과 GE항공은 항공기 및 엔진 수주와 연계되어 있고, 카길은 농산물 교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, 항공·농업 분야는 양국 간 실질 계약과 교역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분야로 제시됨

〈미국 대표단 방문 명단(17개)〉

| 기업         | LOGO | 귀빈       | 기업    | LOGO | 귀빈        | 구분   |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테슬라        |      | 일본 마스크   | 마이크론  |      | 산제이 페르로트라 | 기술   | 애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국은 주요 생산기지·공급망 거점이자 3대 시장 중 하나          |
| 애플         |      | 팀 쿡      | 퀄컴    |      | 크리스티애노 아몬 |      | 테슬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하이 전기차·ESS 생산거점, AI·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       |
| 보잉         |      | 필리 오토버그  | 비자    |      | 라이언 맥이어나니 |      | 메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광고·AI 마케팅 지원                 |
| GE 에어로스페이스 |      | 래리 켈트    | 마스터카드 |      | 마이클 리버호   |      | 마이크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국 내 패키징·테스트·스마트제조 협력                    |
| 블랙록        |      | 래리 링크    | 카길    |      | 브라이언 사이크스 |      | 퀄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국 매출 비중 높고, AI·자동차칩·5G-A/6G 협력          |
| 블랙스톤       |      | 스티븐 슈워츠먼 | 코히런트  |      | 짐 맨더슨     |      | 코히런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광통신·반도체 레이저 등 광전자 부품 공급                  |
| 골드만삭스      |      | 데이비드 솔로몬 | 일루미나  |      | 제이컵 타이슨   |      | 일루미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전자 분석·정밀의료 분야 중국 내 R&D·생산 기반            |
| 씨티         |      | 제인 프레이저  | 엔비디아  |      | 옌스 황      | 엔비디아 | 중국 AI칩 시장 핵심 공급자였으나 수출통제 영향 확대 |  |
| 메타         |      | 수전 맥코믹   |       |      |           | 금융   | 골드만삭스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국 기업 해외상장·국제화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  |      | 블랙스톤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물류·상업부동산 투자 및 교육·인문교류 연계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  |      | 블랙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국 독자 공모펀드 진출, 자산운용·투자 확대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  |      | 씨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국 내 120년 이상 운영, cross-border 금융 투자은행서비스 |
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  | 항공   | 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외결제·금융결제 인프라·국제여행 결제 협력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  |      | 마스터카드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국 은행·결제기관과 cross-border 결제 협력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  | 농업   | 보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국 항공업과 장기 협력, 737 완공·인도센터 운영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  |      | GE항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공엔진 공급·정비·기술 R&D 협력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  |      | 카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국 내 50년 이상 운영, 곡물·식품·농산물 투자 확대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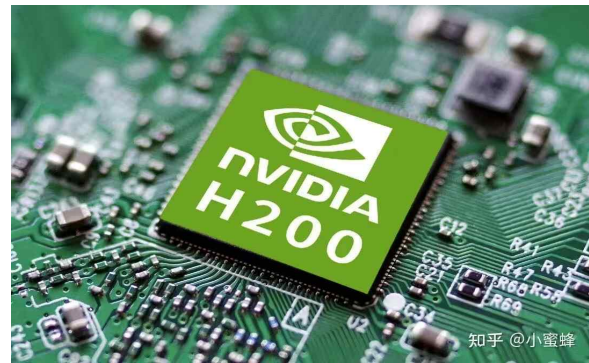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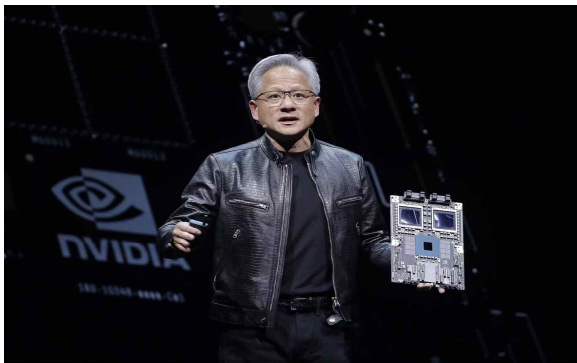
- (중국기업) 중국 측 기업 명단은 에어차이나, 바이트댄스, CICC, 하이얼, 중국공상은행, 레노버, 하이센스 등 16개 주요 국유·민간 기업으로 구성됨

〈미국 대통령 환영만찬에 참석한 중국기업 명단(16개)〉

| 번호 | 기업명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  | 에어차이나(中国国际航空股份有限公司) | 항공운송, 중국 국영 항공사 |
| 2  | 바이트댄스(北京抖音信息服务有限公司) | 틱톡 운영 계열사       |
| 3  | CICC(中国国际金融股份有限公司)  | 투자금융            |
| 4  | 하이얼(海尔集团公司)         | 가전, 스마트홈        |

| 번호 | 기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5  | 중국공상은행(工商银行)               | 대형 국유 상업은행        |
| 6  | 레노버(联想集团有限公司)              | PC, ICT, 스마트기기    |
| 7  | 푸야오유리(福耀玻璃工业集团股份有限公司)      | 자동차 유리, 부품 제조     |
| 8  | 란쓰커지(蓝思科技股份有限公司)           | 스마트폰 유리, 전자부품     |
| 9  | 중량그룹(中粮集团)                 | 식품, 곡물·농산물, COFCO |
| 10 | 중국은행(中国银行)                 | 대형 국유 상업은행        |
| 11 | 샤오미(小米科技有限责任公司)            | 스마트폰, IoT, 전기차    |
| 12 | COMAC(中国商用飞机有限责任公司)        | 항공기 제조            |
| 13 | 완상그룹(万向集团公司)               | 자동차 부품, 제조        |
| 14 | COSCO Shipping(中国远洋海运有限公司) | 해운, 물류            |
| 15 | 중국관광그룹(中国旅游集团有限公司)         | 관광, 면세 서비스        |
| 16 | 하이센스(海信集团控股股份有限公司)         | 가전, 디스플레이         |

### <참고: 미국, 중국 10개 기업 대상 엔비디아 H200 칩 수출 승인>



- ▶ (수출 승인) 외신 보도에 따르면, 미국 상무부는 알리바바·텐센트·바이트댄스·징둥·레노버·폭스콘 등 중국 10개 기업에 대해 엔비디아 H200 칩 수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짐
- 승인 대상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인 H200 칩이며, 각 구매 기업은 최대 7.5만 개까지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짐
- 다만 수출 계획은 승인됐지만, 현재까지 실제 거래가 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도됨
- ▶ (중국 시장) 미국의 수출통제 이전 엔비디아는 중국 첨단 AI 칩 시장의 약 95%를 차지했으며, 중국 시장은 한때 엔비디아 글로벌 매출의 13%를 차지
- 젠슨 황(黃仁勳) 엔비디아 CEO는 2026년 중국 AI 칩 시장 규모를 500억 달러로 추정

\* 출처: <https://mp.weixin.qq.com/s/lgxq6xZUZbwzMR8D-3oVIA>

### 참고자료

- ☑ (26.05.14, 新华社) 详讯：习近平同美国总统特朗普会谈  
<https://mp.weixin.qq.com/s/ETfpG6GfWGpqVAlvgfWqXQ>
- ☑ (26.05.12, 澎湃新闻) 特朗普时隔9年再访华，回顾中美元首历次会晤  
<https://mp.weixin.qq.com/s/ONwgX3gzhRl6S7KuDxdSvg>
- ☑ (26.05.14, 科技日报) 17位“一把手”随访！盘点这些美企与中国合作的成绩单  
<https://mp.weixin.qq.com/s/TgxC2isN8-zsch4TATyUrA>

## 02 中, AI 에이전트 첫 종합정책 발표... '키우되, 통제한다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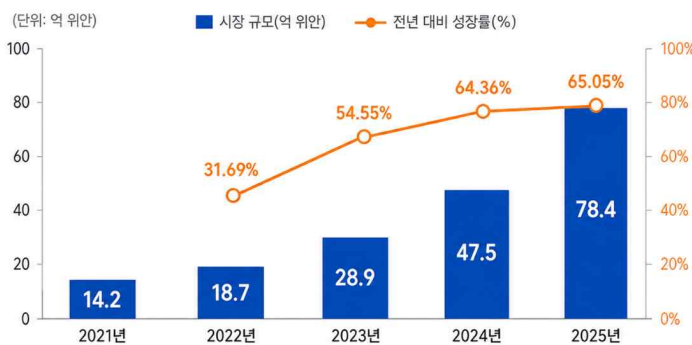
우만주 (yumanshu@kostec.re.kr)

### ■ (배경 및 현황) 중국 AI 에이전트 산업은 '14·5규획' 기간 기술 탐색 단계에서 규모화 응용 단계로 도약

- (시장규모) CCID(赛迪顾问) 통계 기준\* 중국 AI 에이전트 시장규모는 2021년 14.2억 위안 (3,118억 원)에서 **2025년 78.4억 위안(1조 7,220억 원)**으로 확대되며, 5년간 **약 5.5배 성장**

\*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매출만 통계하는 방식

중국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 및 전년 대비 성장률 추이



01 2021년 14.2억 위안→  
2025년 78.4억 위안

02 5년간 시장 규모  
약 5.5배 확대

03 2024~2025년  
증가율 60%대 유지

\* 출처: <https://mp.weixin.qq.com/s/NRQUNErKX1n9Kjj7kb2AOw>

- (기술 수준) 현재 중국의 AI 에이전트는 단순 대화·추론 기능을 넘어,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외부 도구를 활용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**AI 에이전트 L3 단계로 진입**

\* AI 에이전트는 일반적으로 자율 수행 능력에 따라 L0~L5의 6단계로 구분

- ('AI+' 정책 연계) 2025년 8월 국무원은 「'인공지능 플러스(AI+)' 행동계획」을 발표하고, 과학기술·산업발전·소비 고도화·민생복지·거버넌스 등 분야에서 AI 융합을 추진하고 있음

\* 해당 정책은 27년까지 스마트 단말기와 AI 에이전트 등의 응용 보급률을 70% 이상으로 높ی겠다는 목표 제시

### ■ (정책 방향) 최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3개 부처는 「AI 에이전트 응용 및 혁신 발전 실시의견」을 발표하고, AI 에이전트가 '실험실 단계'를 넘어 전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점 방향 제시(26.5.8)

- (4대 과제) 이번 정책은 AI 에이전트 발전을 위해 ▲기술 기반 강화, ▲안전 확보, ▲응용 시나리오 확대, ▲혁신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

#### 〈4대 핵심 과제별 주요 내용〉

| 구분         | 주요내용  |
|------------|---|
| ① 기술 기반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기술 기반 강화) 범용 모델 성능을 높이고, 산업별 전문모델 개발·고품질 데이터 셋 구축·다중 에이전트 협업 등 AI 에이전트의 핵심기술 역량 강화</li> <li>• (도구체계 구축) AI 에이전트의 인식·기억·판단·상호작용·실행 기능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, 연구개발부터 배포·운영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도구체계 마련</li> </ul> |

| 구분           | 주요내용  |
|--------------|---|
|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(표준체계 구축)</b> 핵심기술, 주요 제품, 데이터 교환, 응용 분야, 품질평가, 안전보장, 신뢰 인증 등을 포괄하는 AI 에이전트 표준체계 구축</li> <li>• <b>(스마트 인터넷 기반 마련)</b> AI 에이전트 등록 플랫폼, 디지털 신원 관리, 상호연결 프로토콜, 보안·분쟁 해결체계 등을 통해 다중 AI 에이전트의 연결·협업 기반 조성</li> </ul>   |
| ② 안전 확보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(제품 원칙 규명)</b> AI 에이전트 관련 법규와 윤리 기준을 정비하고, AI 에이전트의 행동이 법률·사회윤리·주류 가치에 부합하도록 관리</li> <li>• <b>(의사결정 권한 관리)</b> 사용자 본인이 결정해야 할 영역, 사용자 승인이 필요한 영역, AI 에이전트가 자율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 권한 남용 방지</li> <li>• <b>(행위 통제 강화)</b> 규칙 내장, 행위 제한장치, 추적·검증 기술 등을 활용해 AI 에이전트가 공공장소·개인공간·특수장소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관리</li> <li>• <b>(보안 리스크 방지)</b> 개인정보 유출, 알고리즘 변조, 시스템 취약점, 운영 통제 실패 등 AI 에이전트의 주요 보안 위험을 사전에 관리</li> <li>• <b>(공급망 안전 강화)</b> 모델 연동, API 호출, 확장 도구 사용 등 AI 에이전트 개발·배포·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</li> <li>• <b>(악용 방지 체계 구축)</b> AI 에이전트가 자동화 공격, 개인정보 침해, 허위정보 생성, 온라인 사기 등 불법행위에 활용되지 않도록 상시 위험감지와 대응체계 강화</li> <li>• <b>(분류·등급별 관리)</b> 적용 분야와 잠재 위험 수준에 따라 AI 에이전트를 차등 관리하고, 민감 분야와 중점 산업에는 신고·검사·문제제품 회수 등 엄격한 조치를 적용</li> <li>• <b>(평가·인증 서비스 확대)</b> 위험 모니터링, 안전성 평가, 전문 컨설팅, 인증, 제3자 테스트 등을 통해 AI 에이전트의 성능과 합법성을 검증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</li> <li>• <b>(업계 자율 강화)</b> 업계 단체와 주요 기업이 기능 준수, 알고리즘 관리, 지식재산권 보호, 공정경쟁 등 자율규칙을 마련하도록 유도</li> <li>• <b>(신용평가 메커니즘 도입)</b> 기술 남용, 과장 광고, 결함 은폐, 소비자 유도 등 문제 행위에 대해 시장주체의 신용평가와 제재 방안을 마련</li> </ul> |
| ③ 응용 시나리오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(과학연구)</b> 이론 추론, 시뮬레이션, 지식체계 구축, 데이터 분석 등을 지원하는 연구용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과학연구의 역량 강화</li> <li>• <b>(산업발전)</b> 스마트 제조, 에너지자원, 교통 운송, 농업 생산, 금융 서비스 등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해 생산 효율, 자원관리, 위험예측 능력 강화</li> <li>• <b>(소비 진작)</b> 모바일 결제, 문화·관광 및 상업서비스 등 생활형 서비스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해 소비자 편의성과 서비스 경험 개선</li> <li>• <b>(민생복지)</b> 교육, 의료, 취업, 정보서비스 등에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처리 효율을 높임</li> <li>• <b>(사회 거버넌스)</b> 정무 서비스, 사법 지원, 공공안전, 도시관리, 입찰 관리 등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공공관리의 지능화와 업무 효율화 추진</li> </ul>   |
| ④ 혁신 생태계 조성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(산업협력 촉진)</b> 오픈소스 커뮤니티, 기업, 대학, 연구기관이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·인터페이스·도구체계 개발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,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강화</li> <li>• <b>(응용 보급 확대)</b>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스토어, 산업 수요·공급 플랫폼,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고 실제 시장 적용 촉진</li> </ul>  |

- (주요 특징: '육성'과 '규제' 병행) 중국은 AI 에이전트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면서도, 안전·권한·표준·등록관리 체계를 통해 제도권 안에서 통제하는 2트랙 전략을 추진

### 1) AI 에이전트에 '안전벨트' 채우기

- (안전 통제 강화) 최근 AI의 권한 초과, 데이터 유출 등 위험이 커지면서, 이번 정책은 AI 에이전트의 안전관리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**종류별·등급별 거버넌스 원칙**을 명확히 함
- (행위 경계 설정) 예를 들어 의료·교통·금융 등 고위험 분야에는 AI 에이전트 등록관리와 강제성 표준을 적용해 기술 활용의 안전선을 명확히 설정

### 2) '스마트 인터넷'과 'AIP' 개념 신규 도입

- (차세대 인프라 구축) 이번 정책은 처음으로 '스마트 인터넷'과 'AI 에이전트 상호연결 프로토콜 (AIP)' 개념을 제시하고, AI 에이전트 등록 플랫폼 구축 방향 제시
  - \* AI 에이전트마다 '디지털 신분증'을 부여해, 개별 에이전트를 식별·등록·관리 가능한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시도
- (표준화 관리 전환) 중국은 AI 에이전트 산업을 기존의 자율적·분산적 성장 단계에서 벗어나, 규칙과 기준이 있는 표준화 관리 단계로 전환하려는 시도
  - \* 과거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가 신고·등록 관리체계에 편입된 것처럼, 향후 AI 에이전트도 통합 관리 대상이 될 예정

### 3) AI 에이전트, 19개 응용 시나리오로 확산

- (응용 시나리오 확대) 이번 정책은 과학연구, 산업발전, 소비진작, 민생복지, 사회거버넌스 등 5대 분야에서 AI 에이전트의 19개 응용 시나리오 제시

#### 〈19개 응용 시나리오〉

| 구분     | 시나리오 수 | 적용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과학연구   | 2      | • 연구 탐색, 연구개발 보조                    |
| 산업발전   | 5      | • 스마트 제조, 에너지자원, 교통 운송, 농업생산, 금융서비스 |
| 소비진작   | 3      | • 단말기 응용, 문화관광, 상업서비스               |
| 민생복지   | 4      | • 교육, 의료건강, 인적자원, 정보서비스             |
| 사회거버넌스 | 5      | • 정부서비스, 사법서비스, 공공안전, 도시관리, 입찰 관리   |

#### 참고자료

- ☑ (26.05.08, 中国网信网) 智能体规范应用与创新发展的实施意见  
[https://www.cac.gov.cn/2026-05/08/c\\_1779979789523320.htm](https://www.cac.gov.cn/2026-05/08/c_1779979789523320.htm)
- ☑ (26.05.09, 新华国研经济学研究院) 深度解读：《智能体规范应用与创新发展的实施意见》  
<https://mp.weixin.qq.com/s/NRQUNErKX1n9Kjj7kb2AOw>
- ☑ (26.05.11, AI云原生智能算力架构) 《智能体规范应用与创新发展的实施意见》深度洞察！  
<https://mp.weixin.qq.com/s/-LnjMGTQb-aROO16vjHsTA>

## 03 2025년 디지털 중국 보고서 발표, 中 AI 산업 1.2조 위안 돌파

우만주 (yumanshu@kostec.re.kr)

### 중국 국가데이터국이 발표된 「2025 디지털 중국 발전보고서」에 따르면 25년 디지털 중국 발전지수가 170.1로 전년 대비 12.99% 증가

\* '디지털 중국 발전 보고서'는 매년 발간되는 국가 공식 연례 보고서로, '23년부터 국가데이터국이 주관하여 전년도 추진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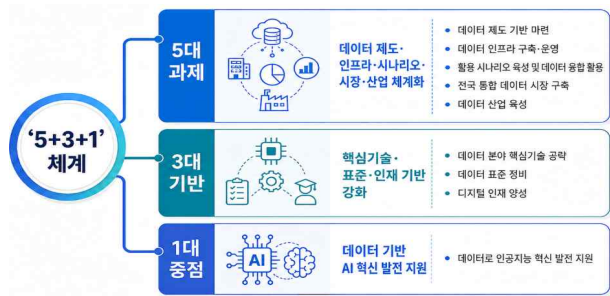
#### ● (기반 마련) 2025년 중국은 ▲제도 정비, ▲AI 기술 확산, ▲데이터 자원화, ▲인프라 구축, ▲전문 인력 양성 등 분야에서 디지털 기반 강화

- 25년 기준 **글로벌 AI 특허 보유 비중은 60%**에 달하고, **고품질 데이터셋은 11만 개 이상**, 데이터 표기 규모는 85PB, 관련 산출가치는 183억 위안(약 4조 364억 원) 규모로 확대
- 인프라 측면에서는 5G-A가 **330개 이상** 도시를 커버하고, 6G 핵심기술 **300여 개**를 축적했으며, 지능형 연산력은 159만 PFLOPS에 도달

〈2025년 중국 디지털 분야 대표성과〉



〈데이터 요소의 시장화 배치를 위한 '531' 업무체계〉



〈중국 디지털 분야 주요 성과〉

| 구분       | 주요 내용  |
|----------|--|
| 제도 정비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정무 데이터 공유 조례」, 「인공지능 플러스(AI+) 행동계획」 등 정책을 발표하며 데이터 공유와 AI 응용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</li> <li>데이터 요소의 시장화 배치를 위한 '531' 업무체계*를 마련하고, 데이터 재산권 제도 구축</li> </ul> <p>* '5'는 데이터 제도·인프라·응용 시나리오·전국 통합 데이터 시장·데이터 산업 육성, '3'은 핵심기술·데이터 표준·디지털 인재 양성 기반, '1'은 데이터를 활용한 AI 혁신 발전을 의미함</p> |
| AI 기술 확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국은 <b>글로벌 AI 특허의 약 60%를 보유</b>하며,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</li> <li>AI Agent(사용자의 명령을 스스로 판단·실행하는 AI 시스템)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<b>토큰(Token, AI가 문장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) 소비도 빠르게 증가</b></li> </ul>  |
| 데이터 자원화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품질 데이터셋은 <b>11만 개 이상</b>을 구축</li> <li>데이터 표기 누적 규모는 <b>85PB</b>를 넘었고, 관련 산출가치는 <b>183억 위안</b> 규모로 성장해 데이터 가공·활용 산업의 시장 기반이 커지고 있음</li> </ul>   |
| 인프라 구축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국내 5G-A 네트워크는 <b>330개 이상</b> 도시로 확대됐고, 6G 연구개발에서는 <b>300개 이상</b> 핵심기술 비축을 형성</li> <li>지능형 연산력은 <b>159만 PFLOPS(FP16 기준)</b> 규모에 도달했으며, 전국 일체화 산력망 시험검증 플랫폼도 운영에 들어가 AI 학습 추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기반이 강화</li> </ul>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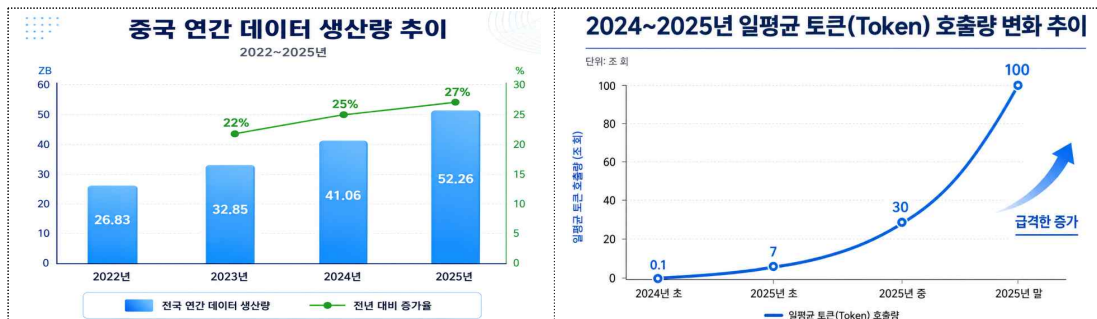
| 구분      | 주요 내용   |
|---------|---|
| 전문인재 양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국 약 300개 대학이 디지털 경제 전공을 개설하고, 약 800개 대학이 데이터 과학 및 빅데이터기술 전공을 운영하며 디지털 분야 교육 기반 확대</li> <li>디지털 관련 학부 전공은 2,200개에 달해 AI·빅데이터·디지털 경제 분야의 산업 수요에 대응할 전문인력 공급 체계를 빠르게 구축 중</li> </ul> |

- **(활용 확산)** 2025년 중국은 인공지능(AI)과 디지털 기술을 산업 성장, 행정 효율화, 교육·의료 서비스, 친환경 인프라 구축 주요 분야에 적용 확대
  - 디지털 경제 핵심산업은 GDP의 10.5% 이상을 차지했고, 인공지능(AI) 핵심 산업 규모도 1.2조 위안(약 264조 원)을 넘어서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
  - 스마트교육 플랫폼 이용자는 1.78억 명, 인터넷 의료 이용자는 4.11억 명(전체 네티즌의 36.5% 수준)으로 늘었으며, 친환경 컴퓨팅 자원 시설도 306개 구축
- **(환경 개선)** 2025년 중국은 디지털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▲안전·규제 강화, ▲국제 협력 확대를 병행 추진
  - 「네트워크 안전법」 개정, 「네트워크 데이터 안전 관리조례」 시행, 「AI 안전 거버넌스 체계 2.0」 발표 등을 통해 데이터·AI·플랫폼 관리 기준을 강화
  - 「인공지능 플러스(AI+) 국제협력 이니셔티브」를 제안하고, ‘실�크로드 전자상거래’ 협력국을 36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분야 대외협력도 강화

#### 〈참고: 중국 데이터 자원 현황〉

- ▶ **(생산 규모)** (2025 중국 데이터 자원 조사보고)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연간 데이터 생산량은 52.26ZB로 전년 대비 27.28% 증가했으며, 전 세계 데이터 생산량의 약 30% 차지

\* 1인당 데이터 생산량은 약 39.94TB로 전년 대비 27.56% 증가



- ▶ **(AI 활용 규모)** 2025년 중국의 AI 학습·추론용 데이터 총량은 199.48EB로 전년 대비 42.86% 증가했으며, 이 중 추론용 데이터는 101.34EB로 처음으로 학습용 데이터를 넘어섬

\* 연간 토큰(Token) 호출량은 약 2.11경 회에 달해, 토큰이 AI 활용 규모를 보여주는 새로운 핵심 지표로 부상

#### 참고자료

- ☑ (26.4.29, 国家数据局) 国家数据局发布《数字中国发展报告(2025年)》  
[https://www.nda.gov.cn/sjj/ywpd/sjzg/0429/20260429162826395159001\\_pc.html](https://www.nda.gov.cn/sjj/ywpd/sjzg/0429/20260429162826395159001_pc.html)
- ☑ (26.4.29, 国家数据局) 《全国数据资源调查报告(2025年)》正式发布  
[https://www.nda.gov.cn/sjj/ywpd/sjzy/0429/20260429164803571173880\\_pc.html](https://www.nda.gov.cn/sjj/ywpd/sjzy/0429/20260429164803571173880_pc.html)

## 04 中 AI-에너지 융합 전략 발표 : AI가 전기를 쓰고, 전기가 AI를 키운다

정리 (miouly@kostec.re.kr)

### 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·국가에너지국·공업정보화부·국가데이터국은 AI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고, AI를 활용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'AI와 에너지의 융합 촉진 방안'을 발표(26.5.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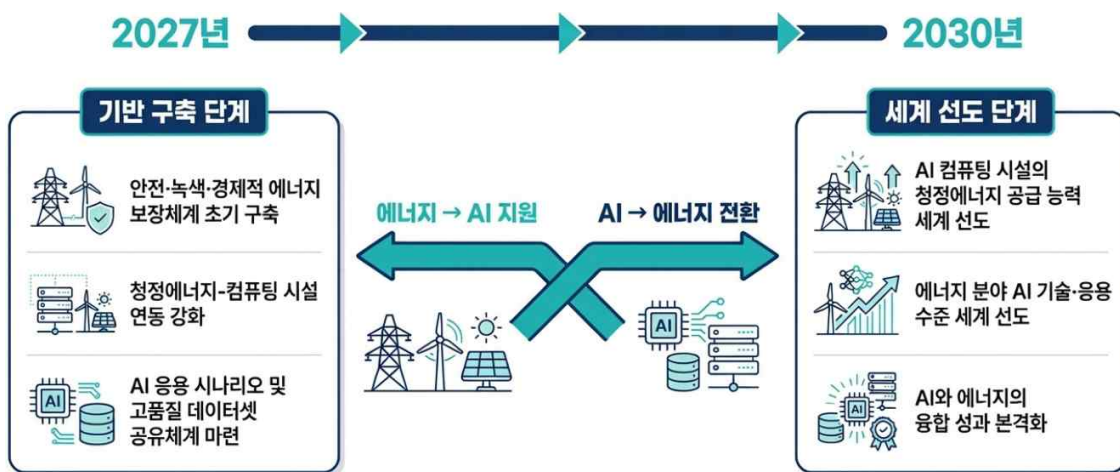
- (배경)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, 중국은 컴퓨팅 인프라 확대와 청정에너지 공급, 전력망 안정 운영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함

\* IEA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2024년 415TWh에서 2030년 945TWh로 2배 이상 증가하고, 이 중 AI가 핵심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

- (정책 흐름) 중국은 2025년 'AI+' 행동 의견, 'AI+ 에너지' 실시 의견 등을 통해 AI-에너지·컴퓨팅 인프라 연계 정책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함
- (산업 현황) 2030년 중국 데이터센터 전력부하는 1억kW, 연간 전력소비량은 400~600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, AI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대응이 주요 과제로 부상함

- (목표) 2027년까지 AI-에너지 연계 기반을 구축하고,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AI 기술·응용을 세계 선도 수준으로 높여 양방향 융합 구조를 완성

#### 〈AI-에너지 융합 추진 목표〉



### ■ 이번 정책은 기존의 '데이터센터 녹색전력 확대' 또는 'AI의 에너지 분야 활용'이라는 단일 방향 접근에서 벗어나, AI와 에너지를 서로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

- 구체적으로 AI와 에너지의 양방향 융합을 위해 컴퓨팅 시설의 에너지 공급, 녹색·저탄소 전환, 컴퓨팅-전력 협동, 에너지 AI 시나리오, 데이터·모델 생태계·정책지원 등 9개 분야, 총 29개 과제를 제시

### 〈AI-에너지 융합 방안 주요 과제〉

| 과제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|
|-----------------|--|
| ① 안정적 에너지 공급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형 신에너지 기지와 국가 컴퓨팅 허브를 연계해 컴퓨팅 시설을 신에너지 밀집지역에 배치</li> <li>백만kW급 AI 컴퓨팅 시설과 연계 에너지시스템의 협동 구축을 시범 추진</li> <li>원전·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를 컴퓨팅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 모색</li> </ul>             |
| ② 녹색·저탄소 전환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I 컴퓨팅 시설의 녹색전력 사용 비중을 높이고, 녹색전력 및 인증서 거래 참여 확대</li> <li>고효율 냉각, 고성능 서버, 저전력 칩, 폐열 회수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 적용</li> <li>신규 증설 컴퓨팅 시설의 PUE, 녹색전력 비중, 탄소배출 등을 심사·평가에 반영</li> </ul> |
| ③ 컴퓨팅-전력 협동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력시장 가격 신호를 활용해 컴퓨팅 시설의 에너지 관리와 지역 간 자원 배분 최적화</li> <li>컴퓨팅 시설을 전력망의 유연 조절 자원으로 활용해 전력시스템 안정성 제고</li> <li>녹색전력 장기계약, 보조서비스, 수요반응 등 전력시장 거래 참여 확대</li> </ul>               |
| ④ AI 응용 시나리오 개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정에너지 발전 예측, 전력망 안정 운영, 석탄 무인화 채굴, 지능형 탐사 등 시나리오 발굴</li> <li>에너지 기업의 우수 시나리오를 개방하고, 기술·데이터·인프라의 공유와 유통 촉진</li> <li>시나리오 발굴부터 검증, 적용, 평가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</li> </ul>     |
| ⑤ 에너지 데이터 활용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에너지 분야 고품질 데이터셋 구축 기준을 마련하고, 수집·전처리·라벨링·검증 체계 정비</li> <li>에너지 데이터 분류·등급 기준을 마련하고, 데이터 전주기 보안체계 구축</li> <li>신뢰 가능한 데이터 공간을 활용해 데이터 공유, 유통, 가치평가, 수익배분 체계 마련</li> </ul>     |
| ⑥ 에너지 AI 모델 혁신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력망, 발전, 석탄, 석유·가스, 종합에너지 분야의 전문 대형모델 개발 추진</li> <li>5개 이상의 전문 대형모델을 에너지 주요 업종에 심층 적용</li> <li>AI 에이전트, 인바디드 AI, AI 네이티브 아키텍처 등 신기술의 에너지 분야 적용 확대</li> </ul>              |
| ⑦ AI-에너지 생태계 조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I+에너지 표준체계를 구축하고, 응용능력·녹색저탄소·컴퓨팅-전력 협동 평가 기준 마련</li> <li>데이터, 모델, 응용 전반을 포괄하는 AI 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</li> <li>국제협력, 해외진출, 융합형 인재 양성, 에너지 AI 오픈소스 커뮤니티 조성 추진</li> </ul>         |
| ⑧ 정책·금융 지원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를 활용해 AI-에너지 융합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</li> <li>에너지 AI 기술·장비를 최초 도입·적용 중대 기술장비 지원 범위에 우선 포함</li> <li>REITs, 녹색채권, 녹색금융, '양중·양신' 자금 등을 활용해 투자 지원 확대</li> </ul>        |
| ⑨ 추진체계 관리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에너지위원회가 총괄하고, 국가발전개혁위·국가에너지국 등이 부처 간 협력 추진</li> <li>지방정부와 중점기업이 세부 이행을 담당하고, 기술개발·시범사업·응용 확산 추진</li> <li>상시 모니터링, 성과평가, 정책 홍보,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정책 이행력 제고</li> </ul>         |

#### 참고자료

- ☑ (26.05.09, 新浪财经) 人工智能与能源双向赋能有了路线图！  
<https://finance.sina.com.cn/jjxw/2026-05-09/doc-inhxhuv1385026.shtml>
- ☑ (26.05.09, 中国政府网) 国家数据局印发《关于促进人工智能与能源双向赋能的行动方案》的通知  
[https://www.gov.cn/zhengce/zhengceku/202605/content\\_7068153.htm](https://www.gov.cn/zhengce/zhengceku/202605/content_7068153.htm)
- ☑ (26.05.09, 新华网) 四部门发文促进人工智能与能源双向赋能  
<https://www.news.cn/sci-tech/20260509/3cad9fbc993e4878abe33dc740e9d1d0/c.html>
- ☑ (26.05.09, 国家能源局) 国家能源局联合相关部门促进人工智能与能源双向赋能  
<https://www.nea.gov.cn/20260509/45e5721670704d4e8555d2212211db45/c.html>

## 05 모건스탠리, 中 휴머노이드 로봇 '전기차 공식' 재현 주목

정리 (miouly@kostec.re.kr)

■ 모건스탠리(Morgan Stanley)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전기차 산업의 성장 공식을 재현하며, 향후 글로벌 제조·수출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(26.5)

- (배경) 휴머노이드 로봇은 LLM, 임바디드 AI, 첨단 제조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시제품·전시 중심 단계에서 공장·물류·서비스 현장 적용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
  - 모건스탠리는 중국이 과거 전기차 산업에서 활용했던 정책 지원, 공급망 구축, 국내시장 실증, 대규모 양산 전략을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도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함
  - 특히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로봇을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포함하고, 지방정부 차원의 산업펀드 조성 등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음

### 〈중국 전기차 성공모델의 휴머노이드 로봇 적용〉

| 구분       | 전기차 산업('15~'25년)      |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('25~'35년)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략적 위상   | 제14차 5개년 계획의 중점 분야    | 제15차 5개년 계획의 전략적 신흥산업         |
| 정부 지원    | 수천억 위안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   | 1,870억 위안 규모의 로봇 산업 전용 펀드     |
| 성장 촉매    |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 건설      | 테슬라 옵티머스(Optimus) 양산 기대       |
| 기술 경로    | 완성차 플랫폼+배터리+전기제어 시스템  | 완성 로봇+핵심 부품+피지컬 AI            |
| 초기 주도 기업 | BYD의 글로벌 선도           | AgiBot, Unitree의 글로벌 출하량 선도   |
| 해외 의존도   | 초기에는 리튬 광물과 수입 장비에 의존 | 미국·일본·한국 기업이 중국산 로봇 부품에 일부 의존 |

- (현황) 202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은 약 1.3만~1.45만 대로 추산되며, 이 중 중국 기업이 약 87~90%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
  - 중국 기업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, 낮은 제조비용, 빠른 제품 반복 개선을 바탕으로 양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, AgiBot, Unitree, UBTECH 등이 주요 기업으로 부상함
  - 모건스탠리는 2050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보급량이 10억 대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, 중국이 장기적으로 핵심 생산·수요 시장이 될 것으로 평가함

\* 출하량 상당수는 연구·교육·시범 적용 수요도 포함하고 있어, 실제 산업 현장 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 볼 필요가 있음

### 〈202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순위〉

| 순위  |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재지 | 2025년 출하량 | 글로벌 시장점유율 | 주요 적용 분야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   | AgiBot(즈위안로봇)             | 상해  | 약 5,168대  | 약 38~39%  | 상업, 산업       |
| 2   | Unitree(유니트리)             | 항저우 | 약 4,200대  | 약 32%     | 연구, 교육, 소비자용 |
| 3   | UBTECH(유비테크)              | 선전  | 약 1,000대  | 약 7.5%    | 산업, 상업       |
| 4~6 | Leju, EngineAI, Fourier   | -   | 150~500대  | -         | 다분야          |
| 7+  | Tesla, Figure AI, Agility | 미국  | 각 약 150대  | 4% 미만     | 산업 현장 시범 적용  |

■ **(글로벌 비교) 주요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차세대 성장 분야로 보고 있으나, 중국은 양산·공급망 중심, 미국은 AI·자본 중심, 유럽은 안전·규제 중심으로 서로 다른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**

- 중국은 전 산업망 구축과 대규모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, 국내 공장·물류 등 실제 산업 현장을 대규모 실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
- 미국은 테슬라, Figure AI, 보스턴다이내믹스 등을 중심으로 고급 AI 기술과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, 대량생산과 공급망 통합 측면에서는 중국보다 속도가 느린 것으로 평가됨

〈주요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전략 비교〉

| 구분        |  중국 |  미국 |  일본 |  한국 |  유럽 |
|-----------|--|--|--|--|--|
| 전략적 포지션   | 산업망 기반 제조강국  | 기술 고지와 AI 최전선  | 핵심 부품 및 돌봄 로봇  | 제조 응용 분야 추격  | 안전 규범 및 응용   |
| 2025년 출하량 | 약 12,000대<br>(약 90% 점유)  | 약 450대   | 시제품 단계   | 시제품 단계   | 시제품 단계   |
| 핵심 우위     | 공급망, 비용, 양산능력  | LLM·AI 연구, 자본력   | 정밀 부품, 기술 축적   | 제조 기반, 반도체   | 규제 체계, 산업 통합   |
| 정부 지원 강도  | 매우 높음<br>1,870억 위안 펀드  | 높음, 정책 추진 중  | 중간   | 중간   | 중간, 다소 분산  |
| 대표기업      | UBTECH, AgiBot, Unitree  | Tesla, Agility, Boston Dynamics  | Kawasaki, Toyota, SoftBank   | Hyundai, Rainbow Robotics  | NEURA Robotics, Hexagon AB   |

출처 : (TrendForce, 25.12.09) Japan Advances Core Components, While the U.S. and China Scale Full-System Applications, Says TrendForce, (MAEIL BUSINESS, 26.02.24) 등 자료를 바탕으로 KOSTEC 정리

〈참고 :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5대 경쟁우위〉

- **(전 산업망 구축)** 중국은 감속기, 서보 시스템, 제어기 등 핵심 부품 분야에서 높은 국산화율을 확보하고 있으며\*, 2020~2024년 산업용 로봇 설치에서 중국 현지 공급업체 비중은 30%에서 57%로 상승함  
\* 핵심 부품의 현지화율 70% 이상이라는 제조 목표도 단계적으로 달성하고 있음
- **(대규모 생산)** 중국 제조사는 단기간 내 천 대 단위 출하를 실현했으며, 연간 만 대급 생산능력 확대도 가능한 수준에 도달
- **(가격 경쟁력)** 유니트리외의 보급형 로봇 가격은 약 6,000달러, AgiBot의 간소화 모델은 약 1만 4,000달러로, 고소득 국가의 약 20만 달러 수준 제품보다 크게 낮음
- **(빠른 제품 개선과 국내 실증)** 미국 기업이 고비용·고사양 제품을 장기간 테스트하는 방식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, 중국 기업은 국내 시장을 실증 무대로 활용해 신제품을 빠르게 출시하고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있음
- **(정책 지원 기반)**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(2026~2030년)에 로봇을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처음 포함했으며, 각급 지방정부는 총 1,870억 위안 규모의 로봇 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있음

참고자료

- ☑ (26.05.07, 新浪财经) 大摩：中国机器人产业有望复制电动汽车模式

<https://finance.sina.com.cn/roll/2026-05-11/doc-inhxppih2222393.shtml>

- ☑ (26.05.07, finance) Morgan Stanley: China's Humanoid Robots Replicate EV Blueprint

[https://finance.biggo.com/news/Ic\\_vAZ4B-PfaobXf7Y5h](https://finance.biggo.com/news/Ic_vAZ4B-PfaobXf7Y5h)

## 최근 이슈리포트 발간 리스트

| 순번 | 제목   | 시기       |
|----|--|----------|
| 1  | 제15차 5개년 계획과 중국의 산업·과학기술 재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6.03.21 |
| 2  | 양회(兩會)에서 제시된 2026년 중국 과기혁신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6.03.21 |
| 3  | 제15차 5개년 계획으로 본 중국의 전략 대전환<br>- 중국은 다음 5년을 어떻게 설계했는가 -         | 26.03.06 |
| 4  | 빅사이언스로 보는 중국 과학기술 자립의 엔진<br>- 10대 중추 인프라 구축 동향을 중심으로 -         | 26.02.12 |
| 5  | 중국 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전주기 파이프라인 :<br>조기 영재교육 → 대학 엘리트 트랙 → 해외 인재 유치   | 26.02.09 |
| 6  | 중국은 무엇을 성과로 제시하는가<br>- 관용 매체 발표로 본 과학기술 혁신 성과 -                | 26.01.23 |
| 7  | 중국 AI와 휴머노이드 산업의 현재 좌표와 기술은?<br>- 산업별 현황·지역 분포·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-   | 26.01.23 |
| 8  | 2025 주요 4개국 과학기술 지표 ③ : 연구개발 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.11.07 |
| 9  | 중국 '제14차 5개년 계획'의 성과와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.10.24 |
| 10 | 2025 주요 4개국 과학기술 지표 ② : R&D 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.10.24 |
| 11 | 중국 R&D 생태계 : 양적 팽창에서 질적 도약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.10.24 |
| 12 | 중국 전자상거래의 글로벌라이제이션 - Temu·SHEIN·AliExpress·TikTok Shop을 중심으로 - | 25.09.19 |
| 13 | 2025 주요 4개국 과학기술 지표(R&D예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.09.09 |
| 14 | 미·중 경쟁의 새 전장,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술혁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.09.02 |
| 15 | 중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국제 비교   | 25.08.22 |
| 16 | 2021~2025년 중국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지형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.07.31 |
| 17 | 딥시크 이후, 진격의 중국 AI  | 25.07.30 |
| 18 | 기술패권 흔들리나...中, AI에서 우주까지 美 맹추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.06.20 |
| 19 | 중국 해외 고급 인재 유치 정책과 10년의 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.06.17 |
| 20 | 중국 반도체산업의 굴기와 혁신성과   | 25.06.06 |



## 주간동향 기사 분류 체계

| 중국 14.5 계획<br>(중국 국무원, '21.3월)   | 중국 6대 미래 산업<br>(중국 공신부 등 7개 부처, '24.1월) |   | 한국 12대 전략기술<br>(한국 과기정통부, '23.12월)  |
|--|---|---|---|
| 1. 차세대 인공지능<br>2. 직접회로<br>3. 양자정보<br>4. 뇌과학 및 뇌모방 연구<br>5. DNA 및 바이오 기술<br>6. 임상 의학 및 건강<br>7. 심공, 심지 및 극지 | 1. 미래제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스마트 제조, 바이오 제조, 나노 제조, 레이저 제조, 순환 제조, 공유 제조, 스마트 제어/센싱, 산업 인터넷, 메타버스 등  | 1. 인공지능<br>2. 첨단 로봇/제조<br>3. 차세대 통신<br>4. 반도체/디스플레이<br>5. 사이버 보안<br>6. 양자<br>7. 첨단 모빌리티<br>8. 수소<br>9. 이차전지<br>10. 차세대 원자력<br>11. 우주항공/해양<br>12. 첨단 바이오 |
|  | 2. 미래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차세대 이동통신, 위성 인터넷 양자정보, 양자/광자 컴퓨팅 대규모 언어 모델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| 3. 미래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철금속, 화학공업, 비금속 무기재료, 고성능 탄소섬유, 첨단반도체, 초전도 소재 등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| 4. 미래에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자력, 핵융합, 수소에너지, 바이오매스, 미래 에너지 장비, 태양전지,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등                |   |
|  | 5. 미래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인 우주비행, 달탐사, 위성항법, 도심항공교통 심해작업 설비, 극지자원 탐사, 도시 지하공간 개발 등               |   |
|  | 6. 미래건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포 유전자기술, 합성생물학, 바이오육종, 5G/6G, 메타버스, AI 활용 의료서비스, 디지털 트윈, 뇌-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|   |



CHINA  
SCIENCE

KOREA-CHINA SCIENCE &  
TECHNOLOGY COOPERATION CENTER

##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

| 발 행 일 | 2026. 05. 18.

| 발행기관 |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

| 발 행 처 | 주소 : 북경시 조양구 주선교로 갑12호  
전자성과기빌딩 1308호(100015)  
TEL : 86)10-6410-7876/7886  
<http://www.kostec.re.kr>

